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4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사성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1 열왕 17,10-16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히브 9,24-2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르코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 월 11 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1 월 18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1 월 25 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 월 4 일	\$ 420.00	\$ 110.00	\$ 30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에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미사봉헌자의 이름을 준비된 'All Souls Day' 봉투에 적으셔서 봉헌해 주십시오.

산클레멘테 장학생 선발

산클레멘테 공동체의 학생(High School Seniors for Class of 2013)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선발대상, 지원 서류, 지원 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성당사무실(661-871-9190)로 해 주십시오.

Gospel Competition: 신약 4 대복음 필사 대회

성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클레멘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Gospel Competition (4 대복음 필사)' 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문의: 성당사무실(661-871-9190)

남가주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11/22 (목) 오전 10 시

장소: 롱비치의 El Dorado E. Regional Park

연합미사 (오전 10 시), 2 부행사 (오후 1 시)-'우리성당 스타일'

주최: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 성 라파엘 성당

한인공동체 성당 청소: 매월 다섯번 째 토요일 오후 3 시

공 동 체 소 식

주일학교: 주일 오전 8-9 시

어린이 교실이 친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Ms. Luna) 의 지도 하에, 주일 미사시간 (오전 8-9 시) 동안 성경말씀 찬송 등을 배우며, 영적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박 마가렛 (총구역장).

한인공동체 단합대회 (오늘): Avila Beach

일시: 11 월 11 일 (일요일) 12 시 (정오)

집합장소: Avila Beach Golf Course Parking Lot (전원집합)

6464 Ana Bay Road, San Luis Obispo, CA 93405

전화:(805) 595-4000

저녁식사: Olde Port Inn Restaurant 에서 오후 6 시에 시작

(on the Pier of Port San Luis)

3993 Avila Beach Dr., Avila Beach, CA 93424

전화: (805) 595-2515

골프를 안치시는 분들은 하이킹 과 온천을 즐기신 후에 저녁식사 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임원회의: 11/13(화) 저녁 7 시

11 월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11 월 13 일 화요일 저녁 7 시에, 성당 친교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도회 모임: 11/14 (수)

나눔주제: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르코 13,24-32)

영상피정: 11/18 (주일) 미사후 오전 10-12 시

'성바오로의 딸 수녀회'의 홍점마 수녀님께서 다음 주에 영상피정을 위해 공동체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주제: "행복을 찾아서". 준비물: 메모지 펜

*많이 참석하시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피정후 점심식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소공동체 모임 일정변경: 11/25 (주일) 미사 후

11 월 18 일 영상피정 관계로, 소공동체모임 일정이 11 월 25 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에게 일정변경을 공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마이카 축제를 위해 봉사해주신 형제자매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주님

인순이세실리아 | 가수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 시다. 주님께서서는 불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주님께서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시편 146,7-8). 이 말씀은 제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일상생활 안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저를 막아셨습니다. 한고비가 지나갔나 싶어서, 한 시를 덜 라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때로는 제 실수로, 때로는 어이없는 오해로 불거지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분은 저를 버리시기보다 제게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은 하느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때는 한 말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나 하며 원망할 때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 보면 그때에도 그분은 제가 틀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그 실수를 장점으로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느님, 이게 뭐예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칠 때도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 존재하며 비가 그 치면 산하를 더 아름답게 비추듯듯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제대로 살아. 모두 잘 될 거야.'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제게 말해줍니다. 어떤 일이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것을 해 볼 걸'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온 힘을 다 기울여 노력한 후에 얻게 되는 후회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걸고 제 모든 힘과 마음을 기울여 기쁘게 일합니다.

주님은 어려움만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낼 힘도 주셨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믿어주는 지인들과 응원해주는 팬들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제가 고이 간직하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세실리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하시며 故 김수환 추기경님이 제 손에 쥐여주신 손수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만큼에서 0.1그램의 무게도 더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이렇게 응답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0.1 그램의 힘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알지못하였기에 낭비한 부분은 자비로 거둬주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신의를 드러내 주소서, 아멘."

-서울주보에서-